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52호 [루체 제25130호] 주제 104 (2015)년 12월 18일 (금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끌까지 완성하자!

##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4돐에 즈음하여 절세위인들의 동상과 태양상에

인민군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 꽂바구니 진정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4돐을 맞이하는 온 나라 강산에 민족의 어버이를 끝없이 그리워하며 천세만세 높이 밟들어보시려는 천만군민의 숭고한 도덕의리심이 세차게 굽이치고있다.

주체의 선군태양, 불세출의 대성인아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각지에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과 태양상들에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꽂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전정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높이 모신 만수대언덕으로 인민군장병들과 수도의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의 대오가 끝없이 훌렸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꽂바구니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앞에 놓여있다.

당, 무역,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학교 등의 명의로 꽂바구니와 꽃다발, 꽃



송이들이 진정되었다.

부의 명의로 된 꽂바구니가 진정

꽃바구니들의 맹기에는《위대한 우리와 함께 계신다》등의 글발이

군중들은 불멸의 주체사상의

또한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

되었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창시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 송고한 경의 표시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4돐에 즈음하여 혁명의 대성인아신에게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온 조국강산에 드겁게 굽이 치고있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헌신과 추모의 날을 맞으며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회, 평양시인연당중지도기관, 성원원장, 당,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습니다.

당, 무역,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학교 등의 명의로 꽂바구니와 꽃다발, 꽃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꽂바구니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앞에 놓여있었다.

그들은 천출위인의 자애로운 영상을 봐오며 어버이장군님께서 뿐더주신 만복의 씨앗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직적인 명도밑에 알찬 열매로 주렁지고 이 땅에는 사회주의 강성번영의 전성기가 펼쳐지고 있음을 마음속으로 아뢰어있다.

위대한장군에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 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흠토의 정이 어린 훈장훈장십과 그이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결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텔레비죤실들을 그들은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백두일립에서 휘날리던 혁명의 불을 높이 쑤켜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털털한

령도따라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승리의 한걸음이 이끌어오실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불리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한편 이 날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꽂바구니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불리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한편 이 날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꽂바구니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불리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은 독창적인 사상리론과 비범한 정치실력,

##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동상과 태양상에

팔레스타이나국가 대통령과 나이제리아 련방공화국 대통령이 꽂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4돐에 즈음하여 만수대언덕에 놓여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의 통상에 16일 꽂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맹기에는《위대한 대원수님들이 신

김일성각하와 김정일각하는 영생

하실것이다》등의 글발이 씌여져 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통상에 16일 꽂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맹기에는《위대한 대원수님들이 신

김일성각하와 김정일각하는 영생

하실것이다》등의 글발이 씌여져 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통상에 17일 꽂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의 맹기에는《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여져 있다.

##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

경의 표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서거 4돐에 즈음하여 17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주소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들을 비롯한 외국손님들과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이 고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의를 표시하였다.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은 독창적인 사상리론과 비범한 정치실력,

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결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텔레비죤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이날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꽂바구니의 맹기에는《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여져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로도 나라들사이의 친선관係으로 계시는 영생홀에서 그들은

불멸의 공헌을 하시었으며 주체적해 외교운동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 고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의를 표시하였다.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은 독창적인 사상리론과 비범한 정치실력,

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결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텔레비

비죤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이날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꽂바구니의 맹기에는《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여져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로도 나라들사이의 친선관係으로 계시는 영생홀에서 그들은

불멸의 공헌을 하시었으며 주체적해 외교운동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 고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의를 표시하였다.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은 독창적인 사상리론과 비범한 정치실력,

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결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텔레

비죤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이날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꽂바구니의 맹기에는《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여져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로도 나라들사이의 친선관係으로 계시는 영생홀에서 그들은

불멸의 공헌을 하시었으며 주체적해 외교운동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 고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의를 표시하였다.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은 독창적인 사상리론과 비범한 정치실력,

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결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텔레

비죤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이날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꽂바구니의 맹기에는《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여져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로도 나라들사이의 친선관係으로 계시는 영생홀에서 그들은

불멸의 공헌을 하시었으며 주체적해 외교운동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 고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의를 표시하였다.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은 독창적인 사상리론과 비범한 정치실력,

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결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텔레

비죤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이날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꽂바구니의 맹기에는《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여져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로도 나라들사이의 친선관係으로 계시는 영생홀에서 그들은

불멸의 공헌을 하시었으며 주체적해 외교운동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 고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의를 표시하였다.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은 독창적인 사상리론과 비범한 정치실력,

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결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텔레

비죤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이날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꽂바구니의 맹기에는《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여져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로도 나라들사이의 친선관係으로 계시는 영생홀에서 그들은

불멸의 공헌을 하시었으며 주체적해 외교운동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 고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의를 표시하였다.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은 독창적인 사상리론과 비범한 정치실력,

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결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텔레

비죤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이날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꽂바구니의 맹기에는《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여져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로도 나라들사이의 친선관係으로 계시는 영생홀에서 그들은

불멸의 공헌을 하시었으며 주체적해 외교운동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 고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의를 표시하였다.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은 독창적인 사상리론과 비범한 정치실력,

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결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텔레

비죤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이날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꽂바구니의 맹기에는《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여져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로도 나라들사이의 친선관係으로 계시는 영생홀에서 그들은

불멸의 공헌을 하시었으며 주체적해

#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김정일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출렁히 꾸리도록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84(1995)년 4월  
←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 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99(2010)년 5월



룡성기계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99(2010)년 5월



농업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93(2004)년 9월



강계포도술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90(2001)년 12월



과일군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90(2001)년 9월



조국해방전쟁참가자들이 로병영예군인들을 만나시여 고무격려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92(2003)년 4월



김일성종합대학 교수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99(2010)년 4월



대홍단군종합농장의 제대군인가정을 방문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89(2000)년 3월



대홍국수집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100(2011)년 10월



#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지켜 황철은 나아간다

분이 흐른다. 주홍빛 쇠풀이 굽이 친다.  
쇠풀길에 주름 치고, 단갈래로 피어 오르는  
불보라. 불보라...

온 나라 천만군민의 기슴들을 후련하게  
열어주는 황철의 주제의식입니다.

그렇다. 명실공히 주체의 쇠풀이다. 우리  
의 평성, 우리 부연단, 우리 산소를 가  
지고 우리 힘, 우리 기술로 개진 확장한  
산소열법용광로에서 우리의 제철법으로  
뽐내는 쇠풀. 그야말로 하나님께 열매, 헤아  
내는 쇠풀. 이에 따라 하나님께 열매, 헤아  
내는 쇠풀이다.

우리 쇠 쇠풀포의 정해 한 광경,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충치대하다.

물론 용광로에서 뽑는 쇠풀의 향이 얼마나  
나은가는 언제나 중요한 법이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 글로벌 제철업체들에서 뽑는 쇠  
풀이 아니라 제철업체들에서 뽑는 쇠풀을  
뽐내는 힘을, 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인 주체의 쇠풀이다.

우리 쇠 쇠풀포의 정해 한 광경,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충치대하다.

물론 용광로에서 뽑는 쇠풀의 향이 얼마나  
나은가는 언제나 중요한 법이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 글로벌 제철업체들에서 뽑는 쇠  
풀이 아니라 제철업체들에서 뽑는 쇠풀을  
뽐내는 힘을, 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인 주체의 쇠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체의 쇠풀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암살한 경제체제책동으로  
쓰러져버려 했던 황철이 자력자강의  
신념과 힘으로 만년을 박차고 거연히 솟아  
올랐다!

천 수들 이 제아무리 발악 하여 도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자존심은 허물  
수 없으며 우리의 금속공업은 주체의 제철  
제강으로 세계 기계적 기능과 풍마루, 대  
들보를 더욱 굳건히 하며 세기의 상상봉으  
로 치달아오를 것이다!

주체는 조선의 생명이고 승리이며 조선의  
자존심과 존엄은 그 무엇으로써도 죽을수  
없고 그 무엇과도 흥침 할 수 없는  
우리의 쇠풀철학을 영웅적 실천으로 창조한  
황철의 동로계금은 승리의 직선주로에 들어  
신 사람과 크나큰 포부에 넘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전례없는  
로격적 성스파로 맞이할 것을 전국의 동로계금  
에게 호소하였다.

선철생산능력을 종전의 2배로 대량  
끌어올리고 모든 계통을 국산화, 현대화한  
황철의 사랑스러운 산아—산소열법용광로의  
붉은 쇠풀은 그대로 어머니 당대회에 차  
상 최대의 성과로 맞이하여는 황철로동계금의  
끓는 피이고 기세차게 울리는 산소분리기  
의 우렁한 동음을 주체의 쇠풀로 당을 반  
들려는 그들의 심장의 맥동이다.

잘 익은 첫 쇠풀을 터쳐내면 그 시각 황  
철의 용해 꿈들은 모두가 눈물을 쏟았다. 물  
을 닦고 불을 길들이는 대장부들의 눈물은  
불보다 드립니다.

그들의 눈물은 쇠풀처럼 끄적이웠다.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었다.

그것은 일찍이 산소열법용광로의 설계도  
를 황철에 펼쳐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  
을 걸을 줄이 들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 오  
늘의 이 광경을 보여드리지 못한 안타까움  
과 떠아픈 자책 감의 울어버렸다. 그것은  
또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지켜 차제로  
개진 확장한 산소열법용광로에서 주체의 물을  
뽑아내고야 말았다는 자랑과 기쁨이었다.

기쁠 때나 울 때나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만을 생각하며 초인간적인 자강에  
로 기적을 창조해낸 황철의 동로계금이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을 떠나서는 조선  
로동계금의 자존심을 실천으로 멀출 풀을  
알고 영웅적 기개와 진학률로 보는 계획인  
창조적으로 우리 조국에 비약의 숨결을 더  
해줄 줄 아는 황철로동계금에 대해 말할수  
없는 것이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 하시였다.

『월간 재생산에서 큰 봄을 맡고 있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가 일떠서면 경제강  
국건설에서 한창 할수 있습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도 우리 나라  
의 원료와 연료에 의거한 협생산을 발  
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철공업이 혁명탄이 많은 나라에  
서 먼저 발전하던 바니 코스체슬법이 나  
왔고 지금도 코스로 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철공업이 우리 나라에서

먼저 발전하였더라면 혁명탄을 쓰지 않

고 우리 나라에 있는 연료로 철을 생산

하는 방법이 나왔을 것입니다. 엔탈피에 우리

조상들은 속으로 철을 생산하였습니다.

만일 우리 조상들이 혁명탄을 연구해낸

것은 수령님께서 오래전부터 구상해온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 조상들이

이제 혁명탄을 찾았습니다.

제철공업이 혁명탄을 찾았습니다.

제철공업

#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네원을 빛나는 현실로 꽂피워가는 불라는 충정

## 대고조진군의 앞장에 우리가 서겠습니다

함경북도의 일

군들과 당원

어느덧 4년세월이 흘렀다.

그나마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으로 가슴작지 않은 날과 달이 있었던가.

울해에는 첫눈이 러덜리도 빨리 그리고 많이도 내렸다. 이제 12월 평생 내리는 할박눈을 바라볼수록 우리 장군님에 대한 사무처는 그리움으로 눈굽 적시는 경향복도인민들이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파 같이 교시하시였다.

『함경북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양강을 일으킬 쇠신으로 선군혁명 총진군에서 선구자적역할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진달래꽃 활짝 피어나는 화창한 봄날에 오시려니 되시면만 1월의 북방의 떨한 강추위, 험한 생눈길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함경북도를 찾고 또 찾으시면 위대한 장군님.

김책제 철련합기업소를 찾으시여 김철의 영웅적동계급이 모여 보람찬 투쟁에서 선봉에 설것을 뜨겁게 호소하신 그날도 1월이었고 무산과 태남의 로동계급과 주체철생산체계를 완성한 성진체 강련합기업소로 통계급은 치열한 생산물건성을 벌려 높이 세운 풀창재생산 목표를 접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랑찬 위훈을 창조하였다.

라납탄광기계련합기업소로

동계급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켜주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들은 지난 4년간 장군님의 유훈판찰에 산악같이 떨쳐나온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자랑찬 성과를 올렸다.

김철의 동계급은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거한 3호용광으로 대보수전투를 다그쳐 끌고내고 파악자, 기술자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 선발전장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수 있는 믿음직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성, 중앙 김정숙 어머님께서 탄생하신 깊은 최희의 어부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해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생활상을 위한 더 좋은 매일을 펼쳐주시면서 그날도 1월이었다.

한일의 너 성영웅

김정숙 어머님께서 탄생하신 깊은 최희의 어부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해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생활상을 위한 더 좋은 매일을 펼쳐주시면서 그날도 한데 미간달인

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무산의 동계급은 혼합기업소를 거듭 찾아주시고 자기들을 강성국가건설의 전초병, 개척자 피해 복구 전투장에 달려나가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암고 뜻깊은 울해 대밥파를 연속들이 대며 쇠돌생산과 철정광광산에 서 일대 혁신을 일으켰다. 조국 해방과 당창건 일흔이 되어 뜻깊은 울해 이들은 자체의 힘을 비롯한 기간공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함경북도는 나리의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만큼 강성국가의 대문을 열어 제끼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일어서면서 새롭게 한 광폭한 유산을 수백만 터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주체 99(2010)년 12월이었다.

그래서 이리라. 함경북도의

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무산의 동계급은 혼합기업

소를 거듭 찾아주시고 자기들을

강성국가건설의 전초병, 개척자

피해 복구 전투장에 달려나가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암고 뜻

깊은 울해 대밥파를 연속들이

대며 쇠돌생산과 철정광광산에

서 일대 혁신을 일으켰다. 조국

해방과 당창건 일흔이 되어 뜻

깊은 울해 이들은 자체의 힘을

비롯한 기간공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함경북도는 나리의 경

제발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만큼 강성국가의 대문을 열어

제끼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일어서면서 새롭게 한 광폭한

유산을 수백만 터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주체 99(2010)년 12월이었다.

그래서 이리라. 함경북도의

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무산의 동계급은 혼합기업

소를 거듭 찾아주시고 자기들을

강성국가건설의 전초병, 개척자

피해 복구 전투장에 달려나가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암고 뜻

깊은 울해 대밥파를 연속들이

대며 쇠돌생산과 철정광광산에

서 일대 혁신을 일으켰다. 조국

해방과 당창건 일흔이 되어 뜻

깊은 울해 이들은 자체의 힘을

비롯한 기간공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함경북도는 나리의 경

제발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만큼 강성국가의 대문을 열어

제끼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일어서면서 새롭게 한 광폭한

유산을 수백만 터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주체 99(2010)년 12월이었다.

그래서 이리라. 함경북도의

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무산의 동계급은 혼합기업

소를 거듭 찾아주시고 자기들을

강성국가건설의 전초병, 개척자

피해 복구 전투장에 달려나가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암고 뜻

깊은 울해 대밥파를 연속들이

대며 쇠돌생산과 철정광광산에

서 일대 혁신을 일으켰다. 조국

해방과 당창건 일흔이 되어 뜻

깊은 울해 이들은 자체의 힘을

비롯한 기간공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함경북도는 나리의 경

제발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만큼 강성국가의 대문을 열어

제끼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일어서면서 새롭게 한 광폭한

유산을 수백만 터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주체 99(2010)년 12월이었다.

그래서 이리라. 함경북도의

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무산의 동계급은 혼합기업

소를 거듭 찾아주시고 자기들을

강성국가건설의 전초병, 개척자

피해 복구 전투장에 달려나가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암고 뜻

깊은 울해 대밥파를 연속들이

대며 쇠돌생산과 철정광광산에

서 일대 혁신을 일으켰다. 조국

해방과 당창건 일흔이 되어 뜻

깊은 울해 이들은 자체의 힘을

비롯한 기간공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함경북도는 나리의 경

제발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만큼 강성국가의 대문을 열어

제끼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일어서면서 새롭게 한 광폭한

유산을 수백만 터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주체 99(2010)년 12월이었다.

그래서 이리라. 함경북도의

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무산의 동계급은 혼합기업

소를 거듭 찾아주시고 자기들을

강성국가건설의 전초병, 개척자

피해 복구 전투장에 달려나가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암고 뜻

깊은 울해 대밥파를 연속들이

대며 쇠돌생산과 철정광광산에

서 일대 혁신을 일으켰다. 조국

해방과 당창건 일흔이 되어 뜻

깊은 울해 이들은 자체의 힘을

비롯한 기간공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함경북도는 나리의 경

제발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만큼 강성국가의 대문을 열어

제끼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일어서면서 새롭게 한 광폭한

유산을 수백만 터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주체 99(2010)년 12월이었다.

그래서 이리라. 함경북도의

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무산의 동계급은 혼합기업

소를 거듭 찾아주시고 자기들을

강성국가건설의 전초병, 개척자

피해 복구 전투장에 달려나가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암고 뜻

깊은 울해 대밥파를 연속들이

대며 쇠돌생산과 철정광광산에

서 일대 혁신을 일으켰다. 조국

해방과 당창건 일흔이 되어 뜻

깊은 울해 이들은 자체의 힘을

